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13-16

1. 서론

사람에게는 아쉬움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함께 살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이 땅에서 못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나게 되고 여러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다시 만날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 추도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2. 본문 묵상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것을 말입니다.

“자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슬픈 날이 아닙니다. 왜 슬픈 날이 아닐까요?

14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7절 말씀처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살아남은 자들도 끌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을 살아가야 결국에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우리 000도 남겨진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둘째,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마다 기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슬퍼합니다. 하지만 우리 000은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지금 주님 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제 기일때마다 슬픔보다는 다시 만날 어머니(아버지), 아내(남편)를 생각하며 슬픔을 거두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리고 늘 000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 신앙 안에서 즐겁게 보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000와 함께 계시듯, 지금 우리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육체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우리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셋째,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받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다시 만날 것이다. 000는 하나님과 함께 내려오고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또한 하늘로 올라갈 것이기에 우리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다시 만날 000를 기대하며 슬픔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할 때,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고통 없는 저 천국에서 지내며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이니 이 땅에서의 슬픔을 버리시고 서로 위로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